

한국학 전문사전, 어떤 것들 나와 있나

어문학 및 역사분야가 대종 이뤄 ... '분류사 초기과정' 평가도

인간의 삶을 둘러싼 제반의 사항들을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정리한다는 보편적 의미로서의 학문에는 국경이 있을리 없지만 그 대상마다에는 국적이 있기 마련이다. 한반도 중심의 한민족의 역사 전체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 철학, 언어, 문학, 예술, 민속,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학문으로 '한국학'이 자리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연구대상의 국적이 어디인가라는 외형적 태두리가 한국학을 '일본학'이나 '중국학' 등의 외국학과 변별할 수 있게 한다면 '한국정신문화의 정수를 찾고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으로 요약되는 한국학의 내용은 그 사상적 근간을 민족주의에 잇대게 한다. 한국학의 뿌리를 일제시대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대한 몇몇 학자들이 제기한 '國學'에서 찾는 근거도 여기에 있거니와, 이후로 한국학이 걸어온 궤적이 우리의 시대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해방 이후 외국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학문적 관심의 외국예로의 경사로 인해 도외시되어왔던 한국학에의 관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것 찾기' 움직임과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70년대였음은 이를 잘 반증한다.

한국적인 것, 우리 문화의 뿌리에 대한 관심과 재를 같이 한 한국학은 80년대를 거쳐 최근에 이르러 보다 체계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평이다.

이러한 한국학의 학문적 추이와 성과를 온축하고 있는 것이 관련 사전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학 관련 사전은 대략 20여종에 이르는데 이들 중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학을 총체적으로 집성한 백과사전들이다.

학계에 '한국학 붐'이 일기 시작할 무렵인 1975년에 출간된 「한국학대백과사전」(전3권)(을유문화사)은 비록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어서 현재적 성과와는 거리가 없지 않지만 국내 처음으로 한국학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관련사항들을 총집성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국토지리, 고고, 정치, 제도, 사회, 경제, 종교, 사상, 교육, 민속, 어문학,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서지, 인물 등의 대분류 하에 총 1만5천여 항목을 수록했는데 항목마다 출처와 서지사항을 열거하여 학문의 안내서 역할을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다.

12년간의 편찬기간에 소요예산 174억원을

들여 3800여명의 집필진에 의해 총 27권의 방대한 규모로 최근 편찬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민족의 모든 문화적 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한 사전이다. 한국민족문화를 총괄문화(민족, 강역, 역사), 외면적 문화(자연, 생활, 사회), 내면적 문화(사고, 언어, 예술) 등 크게 3개분야와 9개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국학의 학문적 분류체계 수립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라는 평가다. 수록 항목은 총 6만5천여 항목.

한국학 발전정도 반영한 전문사전들

한국학 각 분야의 전문사전들이 속속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전 편찬이 관련 학문의 일정한 성과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각 분야의 전문사전이야말로 한국학의 발전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출간된 사전들 중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어국문학 분야.

최근학자가 펴낸 「한국속담사전」 「한국민담사전」(문학출판공사), 「한국방언사전」(명문당)과 「李朝語사전」(유창, 연대출판부),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은 어학분야 사전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에 출간된 「한국고전용어사전」은 1차 사료인 우리의 한문고전에서 고대 이래 전근대의 각 시기에 사용된 정치, 경제, 천문, 지리, 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용어들을 발췌, 수록하고 원문의 용례와 출전을 아울러 밝히고 주석정리함으로써 고전국역과 국학연구에 도움을 준다.

예술원이 기획, 출간한 「한국예술사전」(전4권)의 첫째권인 「국어국문학사전」은 고대부터 현대(인명의 경우 1973년)까지 우리나라 문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 작품, 서명, 기관, 문학적 사건 등을 간명하고 평이한 서술방식으로 수록한 사전인데 비해 권영민 교수가 펴낸 「한국근대문인대사전」 「한국현대문인대사전」(아세아문화사)는 작가연구자료에 중점을 둔 사전이다. 1900년부터 1989년까지 등단한 문인 2700여명의 생애와 작품활동내역, 관련비평목록 등을 망라하여 수록했다.

국문학 각 장르별 전문사전도 적지 않게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 「韓國時調大事典」(박우수, 아세아문화사)이 있다. 시



조 생성기인 麗末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남겨진 시조 5천4백92수를 총집성한 이 사전은 특히 지금까지 발표된 「시조문학사전」(정병욱, 신구문화사), 「校本 역대시조전서」(심재완, 세종문화사) 등의 연구서를 종합하고 후속 연구성과를 보충했다는 점에서 사전의 계속편찬의 의의가 돋보인다 하겠다.

국어국문학 다음으로 사전출간이 활발한 분야는 국사쪽. 이홍식의 「국사대사전」(삼영출판사), 국사사전편찬회 편 「국사대사전」(청화), 유홍렬의 「국사대사전」(교학사), 유원열의 「국사대사전」(예원출판사) 등 80년대 들어 출간된 국사사 전체를 총괄한 사전만도 4종에 이른다. 이밖에 「한국근현대사전」(한국사사전편찬회, 가람기획)이 국사분야의 사전으로 눈길을 끄는데, 1860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 1200여 항목을 수록했다. 가나다순의 배열이 아니라 시대순 배열 방식을 택해 단순히 찾아보는 사전이 아니라 한편의 통사처럼 읽는 사전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

성급한 물량주의 경계해야

비록 종수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 연구의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한국학 연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민속, 예술, 종교분야의 사전들도 나와 있다.

「한국민속대사전」(전2권)(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은 관혼상제, 민속놀이, 민간신앙, 의료, 문화재 등 16개 분야에 걸쳐 기초적인 용어를 선정, 수록하고 있다. 「한국복식사사전」(김영숙, 민문고)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복식문화와 관

련된 3000여 항목을 관련문헌과 삽화를 포함해 수록한 것.

예술분야사전으로는 예술원이 편찬한 「한국예술사전」을 우선 꼽을 수 있는데,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를 각각 별권으로 묶어 관련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국악대사전」(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은 저자의 30여년에 걸친 이 분야 연구성과의 결과물로 국악과 관련한 고전, 인명, 악기, 악곡, 춤, 무속, 민속놀이 등 다양하고 광범한 항목을 수록하고 참고문헌의 면수까지 밝히는 등 후학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최근 한국종교사회연구소에서 펴낸 「한국종교문화사전」(집문당)은 한국 역사에 영향을 끼친 모든 종교의 교리, 사상, 조직, 문헌, 의례 등을 총 1500 항목에 걸쳐 밝히고 있다.

근년에 들어 한국학 관련사전들이 보다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것은 한국학 관련 연구자가 늘어났고 연구분야 자체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김윤식 교수(서울대)는 "학문의 발전단계가 통사에서 분류사로, 심화된 통사로 나아가고 보았을 때 한국학은 현재 분류사로 나아가는 초기과정"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그러나 "기능주의적 분화나 양적인 팽창이 학문발전의 척도는 아니다"고 강조하고 한국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정신, 뿌리를 지켜나가는 학통의 계승,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국학의 이러한 발전은 보다 충실하고 알찬 관련사전의 편찬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물량주의나 성과주의의 유혹을 물리친 제대로 된 사전 또한 한국학의 학문적 성과로 자리매길 것이다.

—박남정 기자